

북한 대학 교육제도 및 운영 실태와 과제

김 형 찬 | 서부워싱턴주립대 교육정책 연구과 교수

I. 서론

북한의 대학교육 실태와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대학교육과 관계되는 몇 가지를 설명하여야 하겠다. 먼저 북한 고등교육의 역사적 발전을 간단하게라도 언급하여 그 숫자적 팽창이라던가 대학교육의 다양성의 발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대학교육 제도와 대학교육이 어떻게 일반교육과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북한 대학의 변천

북한 대학교육은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분단 전에는 북한에는 대학이 없었다. 물론, 이런 참담한 교육 현상은 일본 식민 정책의 결과였으며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및 문화적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한은 분단 직후부터 북한 사회를 지도하여 나갈 인재를 양성할 고등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민족 간부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을 창립하는 문제는 김일성이 1945년 11월 3일에 행한 연설인 “종합대학을 창설한데 대하여”라는 담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이 담회에서 “종합대학을 창립하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

할 간부들을 동시에 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종합대학을 근거로 다른 대학도 창설할 수 있다는 신념을 표현하였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민중기지”를 북한에 설치하고 간부를 육성하여 “남한해방”을 시킬 인재를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이 종합대학이 모체가 되어 평양공업대학(지금의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과대학과 사리원농업대학(지금의 원산농업대학)이 창설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1949년 현재 15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18,000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중인 1950~1953년에는 대학 수가 증가되지 않았으나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시 중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은 가교사에서 수업을 계속하였다.

전후 복구사업이 박차를 가하면서 제 1차 3개년 경제계획이 끝난 해에는 19개의 대학, 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난 1959년에는 76개의 대학, 제 1차 7개년 경제계획 말에는 98개의 대학, 6개년 경제계획이 끝난 1976년에는 158개의 대학, 제 2차 7개년 경제계획 말인 1984년에는 216개의 대학, 제 3차 7개년 경제계획이 끝난 1993년에는 280개의 대학이 있었다. 1994년에는 여섯 개의 공업대학과 농업



대학이 창설되었는데 그 이름은 조양공업대학, 온천농업대학, 광산농업대학, 침단농업대학, 서흥농업대학 및 인흥농업대학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1999년에 컴퓨터 과학대학과 법률대학을 창설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도에는 문학대학을 창설하여, 2001년 현재 289개의 대학을 갖고 있다.

III. 북학 대학의 종류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은 다양하며 또 수업 기간도 교육 기관과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북한의 고등교육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 고등교육 체제로서 여기서 학생들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성인 고등교육 체제가 있는데 이런 고등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수업하는 장소다.

일반 고등교육 기관은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제외하고도 고등 전문학교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고등 전문학교를 제외한 대학만 논의하고자 한다.

1. 종합대학

현재 북한에는 세 개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남한

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 또는 서방 세계에서 통하는 종합대학의 개념으로 판단할 때 북한에는 단 하나의 종합대학이 있을 뿐이다. 이 대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예비과 1년 인문사회과학 분야 5년, 자연과학 분야 6년을 수료하여야 졸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수업 연한이 5년 6개월이며 현재 15개 학부, 100여 개의 강좌 10개의 연구소가 있다. 다음 제일 나중에 창설된 종합대학은 개성에 있던 개성경공업단과대학을 1992년에 재조직하여 창설하였으며 이름은 고려성균관대학-경공업종합대학이라 부른다.

2. 단과대학

단과대학은 그 전공분야 면에서 다양하며 또 행정관할부 면에서도 간단치가 않다. 일반적으로 볼 때 단과대학은 특별시, 직할시, 또는 각 도에서 직접 관할한다. 그러나 단과대학이라도 중앙급대학이라고 간주되는 단과대학은 교육성의 고등교육부가 직접 관할·통제한다.

1) 중앙급 대학

이 대학들은 각 전문분야에서 중심이 된다고 간

주되는 대학으로서 교원을 양성하는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이과대학, 평양기계대학, 함흥화학대학, 평양김동태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체육대학, 청진지질대학 등이다.

2) 경제대학

북한의 인민 경제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교육 연한은 4년 6개월이며 대표적으로 정준혁경제대학과 평양의 인민경제대학이다.

3) 공업대학

공업대학은 북한의 산업에 종사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 경공업대학, 기계대학, 화학공업대학, 석탄공업대학 등 다양한 방면의 산업 생산에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시키는 교육 기관이다. 이 공업대학의 수업 연한은 4년부터 6년이다. 예를 들면 보천보공업대학은 수업 연한이 예비과 1년과 본과 5년인 반면에 신의주 경공업대학은 4년, 그리고 사리원 지질대학은 그 수업연한이 4년 6개월이다.

4) 의과대학

의학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은 그 수업 연한이 7년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사리원의과대학은 수업 연한이 7년이고, 학생 수는 남녀 합하여 약 1,500명이 1990년대에 있었다.

5) 교원양성대학

북한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은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두 종류가 있다. 첫째, 교원대학은 그 교육 연수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런 교육 기관에서는 인민학교와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둘째로, 사범대학이 있는데 교육 연수는 5년이다. 그러나 김형직사범대학은 6년제로 되어 있다.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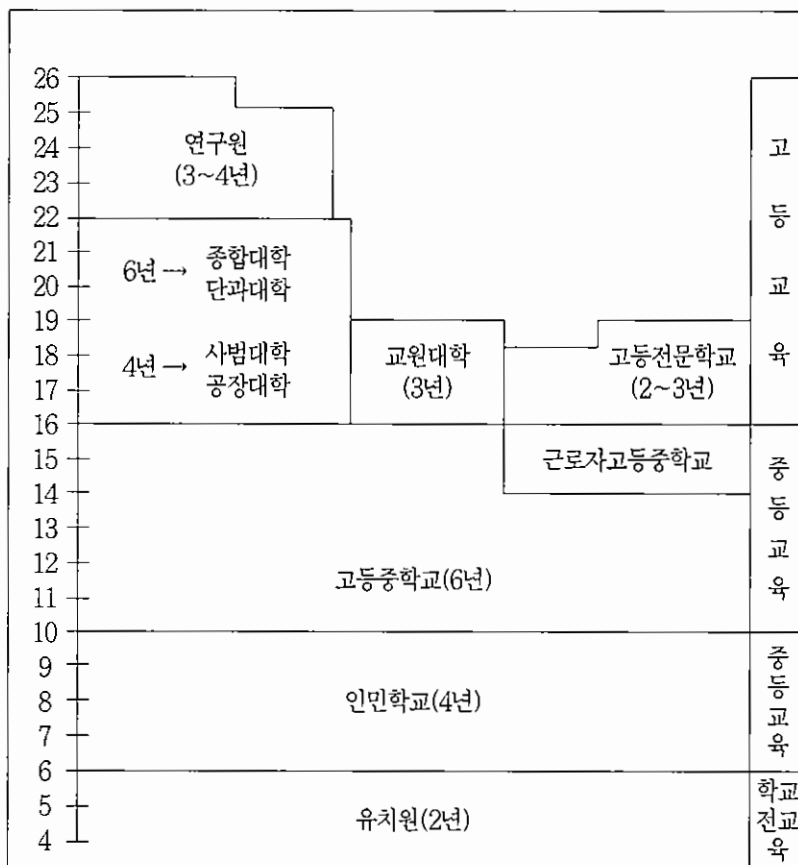
제 사범대학의 예로는 김정숙사범대학, 김철주사범대학, 신의주사범대학 등이 있으며 교원대학으로는 평성교원대학, 신의주교원대학, 사리원교원대학 등이 있다.

성인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공장대학, 농장대학과 어장대학이 있다. 이런 성인 교육 기관은 일반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인한 대도시 집중화를 방지하며 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을 충원시켜주며 제한된 물질적 조건하에서 있는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그와 더불어 생산기관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치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북한에서 공장대학은 제 1차 7개년 경제계획이 시작되던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는 공장대학이 4년제였으나 1964년부터는 5년제로 바뀌었다. 현재 공장대학의 수업연한은 5~6년이며 1990년 현재 100개의 공장대학이 있다. 농장대학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수업연한은 4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이다. 농장대학의 수업은 농사의 진행에 따라 수행되는 데 농번기에는 학습 과제가 있으며 한가한 7~9월에는 저녁에 수업이 계속되고 농한기인 12~2월에는 주간 대학과 같은 수업을 하게 된다. 현재 북한에는 14개의 농장대학이 있다. 어장대학은 함경남도 신포시에 세운 신포수산대학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IV. 북한의 교육제도와 대학 행정

북한의 현재 교육제도는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처음 교육제도는 1946년에 있었다. 다음에는 6·25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53년 7월 11일에 내각 결정 111호로 인하여 교육제도가 새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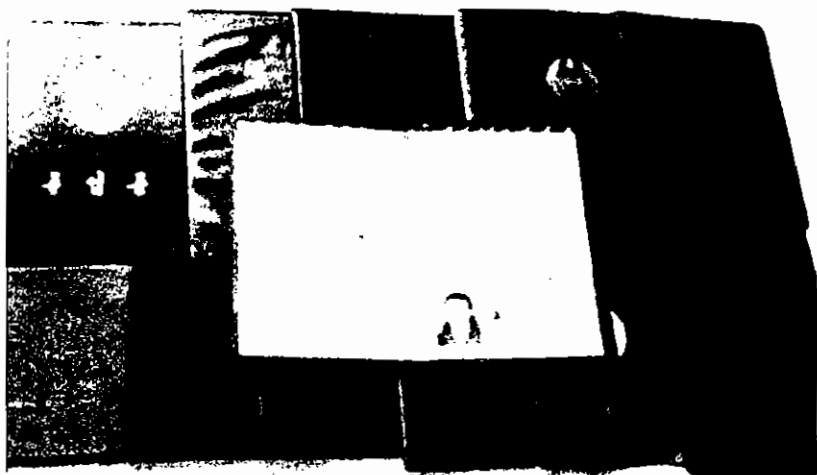
〈도표 1〉 북한의 교육체제(현재)

로 나왔고 다음에는 1959년에 있었고, 1966년에 또 개정이 실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73년에 교육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제도에 의하면 학교 전 교육이 4살부터 6살 아동을 수용하는 유치원이 있는데 이런 2년제 학교 교육의 높은 반인 유치원은 1년제, 인민학교 4년, 그리고 고등중학교 6년과 더불어 11년제 의무교육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북한 주민은 6~16세까지 11년제 의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²⁾

이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잇는 일반 고등교육제가 곧 종합대학교, 단과대학교와 교원대학, 그리고 고등 전문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 체제

는 〈도표 1〉과 같다.

북한의 대학 행정 체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1998년 헌법 13조에서 밝힌 것과 같이 모든 문제해결의 방도를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데서 찾으려 헌법 3조에서 명시된 것처럼 주체사상에 근거를 둔다. 둘째는 중앙집권제의 확립 원칙으로 헌법 5조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모든 행정은 운행된다. 셋째로, 행정부와 당의 이원화 원칙으로서 모든 정책은 당에서 결정하며 당이 결정한 것을 내각에 있는 여러 행정 기구에서 집행하게 한다. 이는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네 번째로, 지방



북한의 대학 졸업장

의 교육 행정은 일반 행정조직에 통합하는 원칙으로서 헌법 141조 4항과 5항에 지방인민위원회가 행정 임무를 집행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의 하위원칙으로 북한에서 법의 집행은 김일성-김정일 교시, 조선로동당 규약, 헌법 그리고 법이라는 순서로 집행된다.

교육행정 지도체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로동당의 중앙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설립하고 결정하며 조선로동당의 비서국 내에 교육을 전담하는 비서가 있다. 현재 교육을 맡은 비서는 유학파인 최태복이다.

당이 결정한 교육 정책은 내각에 하달되는 데 내각에는 교육성이 있으며 교육성 안에는 1국 2부가 있다. 즉,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 그리고 교육기재공급총국이다. 고등교육부는 앞에서 언급된 중앙급 대학을 직접 관할한다. 그리고 교육성 안에는 김일성종합대학지도부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김일성종합대학만을 직접 관할하고 있다.

지방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을 위해 창설된 대학들은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지도와 관리 밑에 있으며 공장대학과 농장대학은 고등

교육부의 간접적인 지도 밑에서 각 기업과 산업기관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다. 그리고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맡는 교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보통 교육부에 속하여 있다.

북한 대학의 행정조직은 대동소이하다. 대학의 행정조직은 학교 행정 체제와 당의 통제체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김일성대학은 교육성 안에 직속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리 통제를 받는다. 김일성대학의 행정조직 체제를 관찰하여 볼 때 총장이 있고 총장 밑에 제 1부총장, 교무부총장, 과학부총장과 경리부총장이 있다. 제 1부총장은 본 대학의 단위원회 책임 비서로서 대학 전반에 걸친 당의 사업을 관할하는 대학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볼 수 있다. 또 제 1부총장은 학부당위원회, 각 학년 초급당위원회 뿐만 아니라 학교의 김일성주의청년동맹(사로청)과 여성동맹을 책임지고 관할하고 통제한다. 과학부총장은 각 연구소의 관할권이 있고 과학연구부장이 과학부총장을 돕는다. 교무부총장 산하에는 15개의 학부가 있으며 박사원과 연구원도 그의 관할권 내에 있다. 경리부총장은 사무부 기숙사부 부기부 및 공장 등을 관할한다.

V. 교원행정

교원에 대한 행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학직, 둘째는 학위, 그리고 셋째는 교원의 임무다. 북한에서는 학직과 학위가 꼭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박사 학위가 없어도 교수가 될 수 있다. 학직은 교원의 업적 평가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교원들의 강의, 연구 활동, 그리고 저술 활동이 중요하다.

1. 학직

학직은 5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교원, 교원, 상급교원, 2급교원과 1급교원으로 등급이 되어 있다. 조교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배치를 처음 받은 사람이 가지는 제일 낮은 등급이며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다. 조교원이 5년 내지 7년의 경험을 쌓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교원이 될 수 있다. 상급교원은 학사(준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교원이 되어 5년 이상 근무한 후 일정한 시험과 검토, 그리고 과거의 업적을 고려하여 등용된 사람들이다. 상급 교원에서 2급 교원은 7년에서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며 대개가 부교수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급 교원은 교수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교원이다.

2. 학위

북한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학사라는 학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자연계 대학 또는 기술 분야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기사라는 자격증을 수여하며 인문계와 사회·과학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리고 사범대학이나 교원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며

공장대학 또는 농장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준기사 자격증을 준다.

북한에는 학위가 현재 학사와 박사가 있다. 학사는 1979년 9월에 준박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1996년에 다시 학사로 개칭되었다. 대학교에 연구원과 박사원이 있어서 학사와 박사를 각각 수여하며 또 다른 과학연구소 같은 연구 기관에서도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학위는 중앙인민위원회 학위학칙수여위원회의 이름으로 수여된다. 학사, 박사 학위 외에 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위는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교수 또는 연구사를 장기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받는 학위며 각 분야마다 원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교원의 임무

교원은 강의 연구 및 집필 활동과 그 외에도 학생 생활 및 정치 학습을 계속하여야 교원의 기본 임무는 강의다. 강의는 연 중 1,000시간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강의를 있기 전에 강의안 작성을 6개월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의안 작성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강의안에는 제일 먼저 당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 2) 반드시 직관물, 영상장치 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 3) 중점 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4) 강의 속도가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 5) 매 강의에 3개어(영어, 한문, 러시아어)로 5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여야 한다.³⁾

강의 규율이 있어서 교원은 강의 시간에 늦게 들어가는 안되며 또 제시간에 강의를 끝나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출석 과제 검열을 한 후 강의를 하고 과제 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은 학생들이 자

기의 과목을 들은 후 학생들의 실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를 위하여 교원은 방과 후 보충 수업 또는 개인 지도를 해야 한다. 학습 학생의 성적이 교원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교원은 행정적인 통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결강, 지강, 폐강 등은 강한 통제를 받으며 교원들의 강의 활동과 연구 활동을 교원 총회에서 비판한다. 그리고 교원은 대학 간부, 학부 간부, 또 동료 교원들의 강의 참관하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이때 강의 밀도 또는 직관 영상물 이용도 강의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교원의 통제와 더불어 표창도 하는데 영어 등수를 매겨서 표창하고 있다.

연구 활동에 교원들은 1,000시간 매년 연구 및 집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 활동은 국가 과제, 대학, 과학부의 연구 과제 그리고 교원 자신에 의한 연구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제시되는 국가 과제 연구는 학사와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교원만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의 특별한 연구 과제는 모든 교원이 참가할 수 있다.

집필 활동에는 강의 참고서, 교과서, 과학연구 잡지, 학술잡지 또는 신문 등에 기고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모든 교원은 자기 강의 과목에 대하여 참고서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조교원과 교원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은 자기가 하는 강의 과목의 교과서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교과서에 근거를 두고 강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원은 강의, 연구, 집필 활동 외에도 정치 학습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정치 학습 활동은 당 정책에 따른 정치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과 김일성, 김정일로작 1건, 덕성실시 1건 정도를 매 주일 연구·발책하는 것, 그리고 생활총화, 사상투쟁회의, 당회의에 참석하여 비판과 토론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Ⅶ. 북한의 대학생선발제도

과거 50여 년 간의 북한 대학의 학생 선발을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970년대 까지 북한 대학은 학생을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였으며 1980년부터 추천 중심의 선발제가 국가시험 제도로 변화하였다.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정치성이 좋은 학생 또는 군에 장기간 근무하던 제대 군인을 우선적으로 대학에 입학시킨 제도는 학생들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현재 북한의 대학은 추천과 시험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추천은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야 한다. 먼저 내각의 교육성은 대학의 수용 능력, 기숙사 용량, 국가의 장기 계획에 따르는 전문분야별 전문가 양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의 정원수를 결정하여 입학시킬 학생수와 추천받을 학생수를 정한다. 이런 결정이 있는 후 각 도와 시에 추천수를 배당한다. 도시인민위원회(1998년까지는 행정경제위원회라고 명칭했음) 교육처는 도와 시에 할당된 추천수를 군 또는 구역별로 분할하여 군 인민위원회에 하달한다. 군 또는 구역은 할당된 수를 학교별 성적 수준, 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학교별로 배당하고 학교는 배당받은 수를 근거로 하여 학교 성적 순위에 따라 학생을 추천한다.

그러나 학생의 대학 진학을 결정짓는 시험은 고등학교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을 통하여 학생의 등급이 결정되며 등수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런 시험은 학교내 군 또는 구역별로 실시된다. 학생의 성적 순위가 대학 입학 추천에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도덕 성품 또는 조직 생활에 오점이 있었다면 성적에 관계없이 추천을 받을 수 없다.

입학 시험은 한낱 한시에 복한 지역 전체에서 행하여지며 시험 문제는 내각의 교육성에서 선출한 대학 교수들이 여러 통의 시험 문제를 작성하여 교육성에 제출하면 교육성의 책임자들이 그 중에서 한 통을 선택하여 대학 숫자에 따라서 복사한다. 각 대학에서는 시험장 수에 맞게 다시 선택된 문제를 복사하여 시험 감독에게 전한다. 시험 과목은 6개 과목으로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국어 등이다. 시험문제는 논술식 문제이고 모든 과목에 3개의 문제가 출제된다. 시험 감독은 각 대학의 저명한 교수와 일부 박사원 학생들이고 한 시험장에 2명 이상이 감독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험 채점은 선정된 교수들이 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여 학생의 이름이나 수험 번호는 볼 수 없게 시험 답안이 조치되어 있다.

시험은 필기 시험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외에도 면접 시험과 체육 시험이 있으며 입학의 가부는 이 세 가지 시험의 총점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면접 과정에서 해당 대학 교수들이 자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면접 시험은 상·중·하로 점수를 정하고 면접 시험에서 하를 맞으면 합격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체육 시험은 철봉, 800m~1,500m 달리기 등을 포함하는 데 철봉은 현수 8개 이상 그리고 달리기는 지정된 시간 내에 들어가야 한다.

체육 시험 결과는 합격과 불합격으로 정한다.

시험 성적 기준은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차별화, 남녀별 차별화, 고등중학교 졸업 후 곧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과 군인 및 노동청년의 차별화, 혁명가, 유자녀의 우대, 김일성-김정일의 직접교시에 의한 특별입학, 대학교수 자녀들의 차별화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성적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며 합격 통보는 대학이 먼저 입학생들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교육성에 합격자에게는 합격 통지서를, 불합격자에게는 불합격에 대한

통지서를 도·시·군에 차례로 하달하고 사후 일정을 통보한다. 합격자는 대학이 정한 날짜 안에 등교하여야 하며 불합격자는 그 지역 노동과에 신고하여 직장 배치를 받게 된다.

합격자는 자기가 희망하는 학부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기있는 학과에 지원자가 많은 경우 지망 학부의 기준 점수가 높아지게 됨으로 경쟁이 심하게 된다. 학과 선정은 학부에 들어간 후 희망 학과를 써서 내고 당과 학교 행정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다. 학생의 과목 선정은 학부와 학과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한번 결정한 학과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VII. 교육과정

북한 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즉, 일반 기초과정, 전공기초과정, 그리고 전공과정으로 짜여있다. 일반 기초과정은 또 전체 대학이 규정한 공통 과목과 전공학과에 맞게 짜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일반 기초과목 내에 당의 혁명사는 대학 전체가 규정한 과목이며 당 정책은 일반, 전공기초과정에서 끝난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전공기초과정까지 계속된다. 일반 기초과정에서 전공학과의 특성에 맞게 짜여진 과목의 예로는 물리학부의 해석기하 그리고 경제학부에는 경제수학 등이 있다.

전공 기초과목은 학생이 전공을 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준비 과목으로 학과에서 결정한 과목이다. 예를 들면 일반 기초과정에서 일반 고등 수학을 배운후 전공 기초과목에서는 확률 과목을 택하는 것이다.

전공과정은 전공과목 강의, 전공실습과 논문작성으로 짜여 있으며 전공실습은 전공기초실습과 전공실습으로 구분되어 있다. 논문작성은 졸업논문



작성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학부장과 교수들과의 협의하에 논문의 주제가 결정되며 지도 교수가 지정된다. 전공실습과 논문 작성 기간에 전공에 맞는 특수 과목의 강의가 이행된다.

강의 시간은 45분이고 강의는 주당 50시간 정도이며 연간 과정안 총시간은 10,000시간이다. 학기는 2학기보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된다.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기를 4월에 시작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대학 강의는 8시 30분에 시작하고 겨울철에는 아침 9시에 시작한다. 오전에 90분 강의를 3강좌 하면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는 자습시간과 당 및 사회단체의 활동 시간이다.

강의는 토론과 결합되는 데 강의와 토론의 비율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3:1, 또는 4:1,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2:1 또는 3:1이다.

강의규율 평가는 기본적으로 출석률, 복습과 예습, 과제 수행과 토론 참가에 기준을 두며 출석률은

평상시 성적의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되며 3번 이상 결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각이 세 번이면 1번 결석으로 인정한다.

복습, 예습과 과제 수행 정형은 교수의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검열되고 각 학생에 점수가 채점되며 과목 강의가 종강이 될 때 평점이 제시된다. 토론의 평가는 학생이 토론에 제시된 문제를 얼마나 잘 알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데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교수는 강의 전에 과제 수행 정형을 검열하고 반드시 강의 후 과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배당된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다.

학생학습정형 총화는 시험, 보고서 및 논문에 근거를 둔다. 시험은 필답시험, 구두시험으로 평상시에는 시험의 총점을 가지고 평가한다. 필답시험은 3개 문제를 논술 형식으로 제출하여 평가하며 각 문제당 비중은 5:3:2이고, 또는 4:4:2로 정한다. 구두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마주 앉아서 표를 뽑아 나온 문제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평상시 성적은 출석, 과제를 수행률을 기준으로 그날 그날의 점수를 총괄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최우등 5점, 우등 4점, 보통 3점, 낙제 1, 2점으로 구분된다. 낙제평가를 받은 학생은 한번 재시험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또 낙제를 받으면 유급처분을 받는다. 2과목 이상에서 낙제를 하면 퇴학 처분을 받게 된다.

졸업 시험은 전공과목 한과목, 김일성-김정일노작, 외국어 논문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은 모든 과목 점수 중에서 제일 낮은 과목 점수가 총평의 점수가 된다.

전공실습(실습)은 실험 보고서로 대체되며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된다. 졸업논문 발표는 평가위원(강좌장, 강좌교수, 지도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행하여지고 평가 방법은 합격과 불합격으로 규정된다.

VIII. 학생 후생복지 및 노동과 군사훈련

북한의 모든 대학생은 무료로 공부하며 국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 예산의 교육비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다. 장학금은 거의 모든 북한 대학생에게 지불되고 있으며 장학금 지불의 규정 및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김일성대학과 지방대학 사이에는 5원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학생의 배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 예컨대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명 있으면 장학금은 한 학생에게만 간다. 고위층 자녀들은 장학금을 못받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에서 의학한 학생은 그 기관에서 장학금을 보장하고 있다. 무의무탁 학생은 장학금을 받고 있다. 북한의 대학생은 교복은 무료 또는 염가로 제공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고 기숙사는 무료다.

북한의 대학생은 과정 안에 포함된 노동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 시간은 조선노동당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연간 70~80일 정도를 노동일로 잡고 과정안을 제정하고 있다. 노동은 주로 농촌에서 논밭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건설 노동도 대학생의 몫이다. 졸업학년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노동과정안이 적용 안된다.

대학 과정안에서 필수적인 것이 교도대 훈련 과정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없다. 대체로 1~2학년 시기에는 6개월간 포병 훈련 및 실제 항공방위근무에 참가한다. 실기시험은 6개월이 끝날 무렵에 실시되며 성적을 점수로 제시한다.

IX. 대학생의 진로

북한의 모든 대학생은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졸업 6개월 전에 직장에 배치되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에 제출되는 서류는

이력서, 진술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총장 또는 학장의 평정서 조직생활과정을 기록한 검사청(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의 평정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출된 서류 심사후 중앙당 간부들이 학교에 파견되어 학생의 직장 배치가 당의 지시대로 이행되는가를 확인하게 되며 졸업 예정자는 총장, 또는 학장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과 개인 면담을 하게 된다. 그 후 중앙당, 내각 시·군인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 학생이 직장 배치를 받게 된다.

직장 배치를 하는데 사용되는 기본 원칙은 첫째, 학생의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이다. 출신 성분은 각 북한 주민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는 부모와 관련된 사항으로 항일열사, 애국열사, 출신지 및 직급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 체제에 도전한다든지 그 체제에 불이익을 주는 행동이나 결과를 가져온 사람은 직장 배치에서 배제된다. 사회 성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서 우선 순위는 노동, 군인 등의 여건이 열거되어 있다.

가족 관계도 엄밀히 검토하는 사항인데 6촌 이내의 친척이 북한 체제와 문제가 있으면 좋은 직장 배치를 받기 힘들다. 당적 관계도 중요한 사항으로 당원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둘째 원칙은 성적이다. 성적이 높을수록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적이 우등, 즉 4점이 못되는 경우 중앙정부기관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정치사상 생활 기준이다. 이 정치생활에 대한 평가는 학부당위원회가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는 학생의 직장 배치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

네 번째 원칙은 전공에 따라 적체적소에 졸업생을 배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있는 곳에 졸업생을 배치한다.⁹⁾

X. 과제

어느 사회에서나 고등교육은 그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여 그 사회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 사회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더욱 더 발전하여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고등교육이 너무도 체제 재생산을 강조하여 학생 선발, 학사운영, 학과 계획 및 졸업 후의 학생의 진로를 관할하기 때문에 체제내의 자발성 또는 창의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이 지니고 있는 과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학과과정의 선택 및 결정, 학생 선발, 학사행정 및 학생진로의 문제에서 정치 사상성을 배제하고 좀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고등교육이 지니고 있는 과제는 북한의 대학생이나 교원들이 어떻게 서로 협동하면서 연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교원들은 자기 분야에서는 강의라든가 연구에 충실하지만 서로 협조하여 연구한다든지 세미나를 같이 한다든지 하는 일이 드물다. 서로 경쟁

의 대상이 되든가 또는 서로 경쟁의 관계에 있게 되어 북한에는 고립적인 연구 태도가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학생은 너무도 노동과 군사 훈련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또 정치사상 활동에 힘을 허비하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북한의 체제 유지와도 관련이 되지만 대학을 어떻게 하면 정치에서 독립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북한에서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다. **■**

■ 주 ■

- 1) 김동규, 김형찬 편(2000),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영인본) 서울: 교육과학사, p.100.
- 2) 김형찬(1998), 『북한교육발달사』, 서울: 한백사, p.33~47.
- 3) 한만길(1998), 『북한 교육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서울: 교육개발원, p.185~186.
- 4)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조명철 교수의 원고 "북한의 대학 교육 체제와 운영 실태"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형찬

미국 George Peabody대에서 교육학과를 졸업,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Western Washington대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객원교수, 서울대 사범대학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북한 교육 발달사』, 『북한의 교육』(편),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북한교육사』(편) 외에 17권의 저서와 60여 편의 논문이 있다.